



싱가폴 국제환경전시회를 다녀와서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 이태우 대리

12월 2일 아침 우리일행 16명은 싱가포르 국제환경전시회 관람 및 환경시설견학을 위한 4박 5일간의 해외 여행차 인천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였다

모두가 타국가의 친환경시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벅차 있었다.

6시간 30분정도의 비행을 한 후인 저녁 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현지 가이드와 함께 곧바로 우리일행이 머물 숙소 Novotel에 도착하였다

오는 도중 현지가이드로부터 우리나라 H건설의 창이공항 국제1층사 준공 및 여러 기타 싱가포르에서의 거대한 공사 실적 등의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12월 3일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우리일행은 "Suntec Singapore Center" 국제환경전시장으로 이동하여 환경관련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전시회의 성격은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관리시스템, 환경관련 기계시설물 등을 홍보하고 서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의 환경 현황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환경관련업체와도 만나고 보니 더욱더 전시회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꼈다.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주룽새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세계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의 새를 관람한 후 호텔로 돌아왔다.

현재 날씨는 흐린 상태였고, 하루에도 한 두번씩 소나기성 비를 뿌리는 스콜현상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다는 현지가이드의 설명도 들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이곳에 참관을 하기 위해 온 타 지역의 참관단과 어울려 한국에서 준비해온 술을 나누어 마시며 업무연찬 및 환경인들의 고충을 서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4일 여행 4일째

아침식사를 한 후 싱가포르 시내를 버스로 일주하면서 싱가포르의 발전현황 등을 보았으며, 우수 중소 폐기물시설 "ECO"라는 회사를 둘러보았다.

"ECO"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서 폐유, 쓰레기등을 분리 및 소각, 처리부산물을 재처리하여 자원으로 재생산, 판매를 하는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서 친환경적운명을 하고 있으나, 더더욱 세세한 곳에서도 부터 환경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한 후 간편한 복장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섬 관광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국제선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향하였다.

바탐섬은 싱가포르에서 배로 약40여분 거리에 있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섬이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도중 우리나라 H사의 한국 화물선도 볼 수 있었다.

자칭 "설운도"라고 하면서 우리말에 능통하고 우리나라 각 지역의 방언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는 현지가이드는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또한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어린이들이 "오! 펠승 코리아!"의 월드 컵 송을 부르며 반겨주자 순간 우리일행 모두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인도네시아 바탐섬 관광을 마치고 숙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돌아오면서 싱가포르 야경을 감상하였다.

3일간의 여정에 모두가 지쳐 있었다.



12월 5일 마지막 날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겨서 호텔 Checkout 하고 말레이시아 조홀 바루시 관광에 나섰다.

국경 다리를 건너 아부비카 회교사원 및 말레이 전통가옥을 관광하면서 말레이시아 전통에 대해서 들었으며,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묘지를 기피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최고의 명당으로 여기며 묘지 주변의 땅값이 가장 비싸서 중산층이 아니고서는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 들으니 재밌고 문화의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오후에 싱가포르 관광단지인 센도사섬을 일주하고 저녁에는 싱가포르에서만 볼 수 있는 풍물관광으로 1800년대 최초 대중교통수단이던 트라이쇼 인력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재래시장을 둘러본 후 리버보트를 타고 강변을 따라 펼쳐진 낭만의 노천 카페와 멋진 야경에 흠뻑 젖어 들었다.

멋진 야경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아쉬운 여행을 마치고 우리일행은 처음 도착했던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다소 피곤한 가운데 바쁘게 진행된 전시회 및 산업시찰, 싱가포르 여행이었지만 신기술 및 선진환경처리기술을 배우고 또한 독특한 문화체험은 살아가는 날 내내 영향을 미칠 것이다. ◀